핀란드의 전자정부

핀란드는 독일의 일부보다 작은 나라에 500만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그런 핀란드에는 서로간의 연결을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직접 정보 통신의 실험 국가가 되고 싶어 했다.

총리 마티 반 하네 바겐 내각의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공식 입장을 말하였는데 “정보화 사회와 정보 통신 기술의 선도적인 제조업체와 사용자가 되는 핀란드“ 이다.

핀란드 주요 행정 과제는 국가의 모든 다른 부분을 위해 적당한 기능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자 정부 체제도 통합적이고 유연해야 한다. 그런고로 핀란드의 전자 정부 전략과 그것의 구현을 이해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방향에서 노력을 시작해야한다.

94년에는 핀란드 최초의 국가정보화 전략이 수립되었고, 96년에는 전자정부 추진 주무부서이기도 한 재무부가 국가 정보화 전략을 발표하여, 고도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정보사회 실현, 정보 및 통신기술 구현의 세계적인 경쟁력 확보라는 비전과 전략, 5대 실행지침을 제시한 바 있다. 핀란드 정보화가 기반기술에 치중되어 있다는 판단에 97년 9월부터 98년 12월까지 국가 정보화 전략은 대폭 수정·보완되어 동 계획에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지식 창출, 그리고 국제 경쟁력 강화로 집약되는 새로운 국가 정보화 전략을 제시하여 향후의 정보화가 기술과 경제가 아니라 인간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핀란드는 가정의 22%, 기업의 45%이상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고, 인터넷 이용요금도 세계에서 제일 저렴한 나라 중의 하나이다. 또한 핀란드는 세계 최초로 제3세대이동통신을 허가했으며, 이 차세대 네트워크는 늦어도 2002년초에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핀란드는 의회가 중심이 되어 의회내에 미래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회내에서 다양한 논의를 전개하였으나 전자정부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면서 논의가 난항을 거듭하고 지지부진한 상태로 장기화되자 핀란드인들은 전자정부 추진 및 실현 가능성에 대해 많은 회의를 품게 되었다. 거듭된 논란의 초점은 네덜란드와 마찬가지로 국민 개인의 생활전반과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사업, 재산, 자동차소유 등에 대한 국가 주요 DB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특히, 이러한 국민 개인의 정보의 활용 및 DB구축 등이 국민 개인의 자유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하고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최소화하는 최선의 방편이라고 국민을 이해시키고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정이라는 점에서 미국이나 영국, 호주와는 차별화되는 환경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었다.

재무부가 전자정부 실현과 정보사회 발전을 전담하는 주무부서로서 중심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자체를 제외한 130개 중앙부처 및 연방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전자정부 추진에 있어 핵심 전략은 국민기본정보, 사업정보, 재산정보, 자동차관련정보 등의 DB 구축과 정보공동활용에 있으며, 각 DB는 국민기본정보센터에서 부여한 특정 개인 ID를 기초로 구축되며, 최초정보에 반복적으로 접근해야하는 번거로움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 DB를 연계하여 구축했다.

관리 프레임 워크 및 관할

핀란드 정부 수준

핀란드의 관리 체제의 특징은 가 행정 및 자치 도시의 상호 작용이다 이 둘의 관계는 정치 행정 시스템에서 수행하는 여러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복지 서비스와 교육에 중점을 두며 일하는 모든 사람의 2/3가 공공부문을 위해 일한다.

중앙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명확한 지배력을 가지며 새로운 법안 등 정부에 의해 결정되는 사항을 책임집니다. 지자체 간의 다양성은 종종 문제를 만들어 냅니다. 정부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 보조금을 통해 관리를 하였으며 1995년 개혁을 통해 지방 정부 자율설과 중앙 정부의 역할을 제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부 기관은 폐지하고 많은 수를 없앴지만 그 역할을 대신 할만한 대안이 없었다. 어떤 경우 기관은 작은 규모로 분할되었고 여전히 시스템에 남아있다.

전자 상거래 정부는 최근 개편 및 이름을 바꾼 기관이며 핀란드 통신 규제기구 (FOCORA)를 예로 들 수 있다. FICORA의 임무 및 다른 수준에서 유사한 감시 기관은 종종 예기치 못한 분야에서의 공익을 돌볼 것입니다.

정부의 관련시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핀란드의 지방 및 비역 당국 (ALFRA)의 협회의 책임이며 ALFRA은 국가와 지방 단체 간의 관계에 대해 협상 테이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협회는 각각 마을과 도시 농촌 지방 및 스웨덴어를 구사하는 지방 자치 단체의 이익을 대표하는 협회의 집합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고문으로 그들의 대표자를 선임하는데 ALFRA의 역할은 정보 사회와 전자의 발전에 중요합니다.

핀란드의 전자 정부 전략은 파일럿 프로젝트와 전자 정부에 대한전국적인 지원의 조합으로 특성화 할 수 있습니다. 파일럿 프로젝트는 널리 문제와 그 해결에 필요한 경험을 얻기 위해 활용되고있다. 프로젝트의 끝은, 거의 예외없이, 다른 무언가의 시작을 의미했다. 새 프로젝트 이전 프로젝트에서 아이디어를 상속하고, 그들의 주요 아이디어는 새 프로젝트에 또는 정부의 영구 조직에 전송되었습니다. 2003 년 내각의 변화는 이 규칙에 예외는 아니었다. 새 내각은 이전 리포넨 내각 동안 계획 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 내각의 정보 사회 프로그램의 구현의 초기 단계에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조치는 1990 년대 후반과 2000 년 초 동안 정부의 개발 프로젝트에서 수집 된 정보를 기반으로했다.

주나 프로젝트

특히이 주나 프로젝트는 핀란드의 전자 정부 발전에 큰 중요성을 가집니다. 내무부는 전자 정부 발전을 1999년 여름 주나 프로젝트가 시발점이 되었다고 판단했으며. 주나 프로젝트는 6개의 주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 서비스의 가능성과 한계를 평가, 정부 차원의 전자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시민. 기업 및 공공 서비스의 ICT를 활용하는 사회를 위한 더 나은 기회를 만들기 위해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공 서비스, 소외 지역의 불균형 발전을 피하기 위해, 그리고 보다 효율적이고 비용 절감에 효과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가 하기 위함입니다.

주나 프로젝트는 총 4개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각각의 특성을 살펴보자면

estra 프로젝트는 공공의 전략적 프로세스와 전자 정부의 목표를 결합하고 겨냥한 모바일 서비스의 가능성을 탐구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오픈 액세스의 발전으로 시민과의 밀접한 소통을 중시하였다. 주요 대상에 대한 가능성과 정보 사회 문제에 대한 전략 혹은 관리 방법의 문제를 만들고 테스트 하는 것.

move@ 프로젝트의 중신 주제는 전자 서비스에서 휴대 전화 네트워크를 통한 수많은 민간 부문에서 일반 대중이 그들의 일상 생황에서 모바일 서비스를 받아 들일 준비가 되었음을 알 웃있었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모바일 서비스의 전자 공공 서비스의 다른 형태를 보완하는 것이고 무료로 제공되었다.

XML 프로젝트는 주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정보 시스템과 인터넷 서비스를 결합에서 언어적 문제로 인한 공통의 언어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시민 프로젝트는 공공 워크 스테이션으로 간단하게 인터넷에 접근 할 수있도록 하는 방법이며 1000주민당 하나의 시민 워크 스테이션을 가지고 있다. 각각 도선과 민간 기업 공공기관에 설치 되어있다.

이러한 주나 프로젝트는 2001년에 끝이 났으며 프로젝트의 성과 및 목표는 2002년 1월에 도입된 전자 정부에 대한 2002~03년의 활동 프로그램에 포함 되었다.

건강 파일럿 프로젝트

사회 및 보건 서비스의 전자적 공급을 사전에 의도 된 대로 EU의 투자 프로젝트를 지방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실시 하였으며 사타쿤타 지역과 관심이 있는 모든 주요 국가 기관이 대상이 되었다. 주요 목표는 환자 중심의 원활한 독립적인 의료 서비스의 연계에 대한 개발이었는데

XML 기술을 응용하여 어딜 가서도 막힘없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위함인데. 평가자에 따르면 성공 사례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다

핀란드에 있는 대부분의 서비스는 지방 자치 단체가 제공하고 있으며 지방 자치 단체는 각각의 자치를 헌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지역, 국가 전자의 구현에 대한 도움을 주고 있다.

지방 자치 단체는 전자 정부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이다.